

2008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 해설지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②	④	①	⑤	④	③	③	①	①	④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①	②	④	⑤	①	②	①	②	⑤	④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②	⑤	②	③	⑤	③	②	③	③	⑤

[해설]

1. [정 답] ②

[해 설]

제시한 한자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수를 찾는 문제이다.

和(화) 화하다 吉(길) 길하다 味(미) 맛

2. [정 답] ④

[해 설]

퍼즐로 된 사자성어에서 공통의 한자를 찾아 제자원리를 파악하여 같은 원리의 한자를 찾는 문제로서 평가요소가 복수로 되어 있다.

走馬看山(주마간산), 他山之石(타산지석)

山(상형자) 上(지사자) 好(회의자) 林(회의자) 門(상형자) 花(형성자)

3. [정 답] ①

[해 설]

형성자에서 부수가 결합할 때 독음이 변하는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

工(공)⇒江(강), 也(야)⇒池(지), 原(원)⇒源(원), 由(유)⇒油(유)

4. [정 답] ⑤

[해 설]

제시한 부수와 총획수에 합당한 한자 찾기

烈 (열,火,10) 세차다, 맵다

思 (사,心,9) 생각

泰 (태,水,10) 크다

慕 (모,心,15) 그리워하다

悅 (열,心,10) 기쁘다

5. [정 답] ④

[해 설]

한자어를 만들 수 있는 공통의 한자 찾기

美德(미덕), 美容(미용), 美觀(미관)

6. [정 답] ③

[해 설]

異音異義字(이음이의자) '降'의 쓰임을 이해하기

下降(하강) 降伏(항복)

내리다 항복하다

7. [정 답] ③

[해 설]

성어에서 공통으로 빠진 한자 찾기

鳥足之血(조족지혈) : 새 발의 피. 분량이 매우 적음

塞翁之馬(새옹지마)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려움

溫故知新(온고지신) :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

螢雪之功(형설지공) :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문에 힘써 이룬 공

漁父之利(어부지리) : 둘이 다투고 있는 동안 제3자가 취하는 이익

8. [정 답] ①

[해 설]

제시된 설명에 맞는 24절기 찾기

"찬 이슬이 맺한다" ⇒ 寒露(한로)

小滿(소만), 雨水(우수), 立夏(입하), 清明(청명)

9. [정 답] ①

[해 설]

동일한 한자가 겹쳐 들어가는 성어 찾기

南男北女(남남북녀) : 남쪽은 남자가 준수하고 북쪽은 여자가 아름다움

類類相從(유유상종) :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物物交換(물물교환) : 물건끼리 서로 바꿈

默默不答(묵묵부답) : 잠자코 대답이 없음

茫茫大海(망망대해) : 아득하게 큰 바다

10. [정 답] ④

[해 설]

성어의 속뜻 알기

目不識丁(목불식정) : 무식 - 글자를 모르는 무식함

累卵之勢(누란지세) : 위태 - 알을 쌓아 놓은 것처럼 매우 위태로운 형세

昏定晨省(혼정신성) : 효도 -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 문안하다. 조석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서 살핌

一舉兩得(일거양득) : 협동 × - 한 가지 일로써 두 가지 이득을 얻음

日就月將(일취월장) : 발전 - 나날이 다달이 나아감

11. [정 답] ①

[해 설]

문맥상 빠진 글자 유추하기

이는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고, 허는 부드럽기 때문에 보존되니, 부드러움은 능히 굳
셈을 이기고, 약함은 능히 강함을 이긴다.

12. [정 답] ②

[해 설]

글의 공통 주제 찾기

일은 빨리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삼 일 갈 길을 하루에 가면 열흘 간 누워있게 된다.

13. [정 답] ④

[해 설]

대구를 활용하여 빠진 글자를 유추하기

선을 행한 자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하고, 불선을 행한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 보답
한다.

14. [정 답] ⑤

[해 설]

제시된 글의 내용과 관련된 성어 찾기

草綠同色(초록동색) : 풀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같이 어울리는 무리는 같은 성격의 무리이다 = 類類相從(유유상종)

不問曲直(불문곡직) : 옳고 그름을 따져 묻지 않음

近墨者黑(근묵자흑) :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행실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거기에 물든다.

緣木求魚(연목구어) : 나무에 올라서 물고기를 구하다.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함

三人成虎(삼인성호) :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정말로 믿게 된다.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면 믿게 됨

<15~16>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15. [정 답] ①

[해 설]

異音異義字(이음이의자) 쓰임을 이해하기

說 1. 말씀 '설' 2. 기쁘다 '열' 3. 달래다 '세'

樂 1. 풍류 '악' 2. 즐겁다 '락' 3. 좋아하다 '요'

16. [정 답] ②

[해 설]

내용상 유사문장 찾기

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②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라

③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는다.

④ 남이 한 번으로 그것을 능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백 번을 한다.

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17~18> 해석

백결선생은 어느 곳 사람인지 모른다. 낭산 아래에 살았는데, 집이 몹시 가난하여

옷을 백 번을 기웠는데 마치 메추라기를 매단 것 같아서 그 때 사람들이 동쪽 마을의 백결선생이라고 불렀다.

17. [정 답] ①

[해 설]

그 당시 사람들이 주인공을 백결선생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옷을 백 번 기워 입었기 때문이다.

18. [정 답] ②

[해 설]

한자어의 짜임 문제

極貧(극빈) 몫시 가난하다 - 수식

① 登校(등교) 학교에 가다 - 술보

② 復活(부활) 다시 살아나다 - 수식

③ 夜深(야심) 밤이 깊다 - 주술

④ 前後(전후) 앞과 뒤 - 병렬

⑤ 希望(희망) 바람 - 병렬

<19~20> 해석

사마광이 태어나서 7세 때, 늠름하기가 성인과 같았다. 좌씨춘추전을 듣고 익혀서 그것을 좋아했다. 돌아가서 집 사람들을 위하여 풀이를 하는데, 곧 그 큰 뜻을 깨닫고 있었다. 이 때부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서 배고픔과 갈증, 추위와 더위를 모르는 경지에 이르렀다.

19. [정 답] ⑤

[해 설]

제시 한자와 통하는 한자 찾기

券(권) 문서, **책**

* 手不釋卷(수불석권) : 손에서 책을 놓지 않다

20. [정 답] ④

[해 설]

제시 문장의 속 뜻 이해하기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를 모르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책에 **몰입**한 상태를 의미한다.

<21~22> 해석

옛날의 성인은 그 남보다 뛰어남이 먼데도, 오히려 또한 스승을 따라서 물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 성인보다 떨어짐이 또한 먼데도, 스승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한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더욱 성인답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더욱 어리석어진다.

21. [정 답] ②

[해 설]

同音異義字(동음이의자)의 한자어 적용

出(출) 1. 나다 2. 뛰어나다

出衆(출중), 外出(외출), 出發(출발), 特出(특출)

22. [정 답] ⑤

[해 설]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어리석은 자가 더욱 어리석어지는 것은 스승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하기(恥學於師) 때문이다.

<23~24> 해석

동해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가 부부로서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연오랑이 바다에 가서 해조를 따는데, 갑자기 바위가 (연오랑을) 싣고 일본으로 갔다. 나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하길, “이 사람은 보통사람이 아니다.”하고 이에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 세오녀가 남편이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가서 그를 찾다가, 남편이 벗어난 신발을 보고 또한 그 바위에 올랐더니 바위가 또 전번처럼 (세오녀를) 싣고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서 왕에게 아뢰어 바쳤다. 부부가 서로 만나 세워서 귀비(왕비)로 삼았다.

23. [정 답] ②

[해 설]

常(상) 1. 항상 2. 보통의, 평범한

24. [정 답] ③

[해 설]

글의 내용 전개 순서를 삽화로 연결하기

<25~27> 해석

계찰이 처음으로 사신을 가는데, 북쪽으로 서군(서나라 임금)에게 들렀다. 서군은 계찰의 칼을 좋아했으나 입으로 감히 말하지 못했다. 계찰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알았으나 상국으로 사신가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 돌아오면서 서나라에 이르렀는데 서군은 이미 죽었다. 이에 그 보검을 서군 무덤의 나무에 매달아 놓고 떠났다. 따르는 하인이 말하길, “서군은 이미 죽었거늘, 오히려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계자(계찰)가 말하길, “그렇지 않다. 처음에 내 마음에 이미 그것을 허락했거늘, 어찌 죽었다고 하여 내 마음을 배반하겠는가”

25. [정 답] ⑤

[해 설]

한자어의 독음

寶劍(보검)

26. [정 답] ③

[해 설]

문장의 형식 - 반어형

“어찌 죽었다고 하여 내 마음을 배반하겠는가 ” (반어형)

- ① 아~ 슬프도다! (감탄형)
- ② 오르기 어려운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금지형)
- ③ 답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 (반어형)
- ④ 천제께서 나로 하여금 온갖 짐승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했다 (사역형)
- ⑤ 농사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평서형)

27. [정 답] ②

[해 설]

글의 내용 파악

계찰은 서군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 것이다.

<28~30> 해석

새 우는 소리에 나그네 꿈 깨어
돌아가고픈 생각이 봄나무 두른다
떨어진 꽃잎은 빈 산에 가득한데
어느 곳이 고향으로 가는 길인가

친구는 서쪽으로 황학루를 떠나
아지랑이 속 꽃 피는 춘삼월에 양주로 내려가네

외로운 돛단배의 멀어져가는 그림자는 푸른 하늘로 사라지고
오직 장강이 하늘 끝으로 흐르는 것만 보이네

28. [정 답] ③

[해 설]

시어 풀이

故人(고인) : 친구

29. [정 답] ③

[해 설]

시의 주된 정서

(가)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시는 친구와의 이별의 아쉬움을 읊었다.

30. [정 답] ⑤

[해 설]

한시 감상

(가)시의 2구에는 ‘春(춘)’, (나)시의 2구에는 ‘煙花三月’이 계절을 나타낸다.